"성공대회 힘 모아준 국민께 감사…北 선수단 불참 아쉬워"

조영택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인터뷰

FINA 임원과 선수단 광주의 열정과 친절에 한 목소리 찬사
세계 신기록 9개 등 신기록 30개 쏟아져 경기면서도 최고 대회
시민·지역언론 꾸준한 관심으로 필요한 추가 예산 확보 감사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조영택 사무총장은 30일 "예산 문제 등 많은 어려움과 아쉬움이 있었지만, 국제수영연맹(FINA)과 각 국 선수단으로부터 '역대 가장 성공적인 대회'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대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이번 대회에 힘을 모아주고 성원해준 국민들과 광주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올해 초에는 예산 확보 등으로 애를 태웠다가 개막 전까지는 FINA측과 경기장 시설, 운영, 마케팅 문제 등의 협상 줄다리를 하는 등 조직위 최전방에서 구슬땀을 쏟았다.

다음은 조 사무총장과 일문일답.

-대회 성공 요인을 꼽는다면?

▲대회 개막 전부터 194개국 7500여명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단이 참가하면서 수영대회 위상을 높였다. 이는 FINA 100년의 역사에 기록되는 이정표를 수립한 것이다. 여기에 일부 경기장 시설이 임시 수조를 사용한 가설 경기장이었지만, 선수들로부터 역대 최고 수준의 경기장 시설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선수들은 편안하고 안락한 선수촌을 높이 평가했다. 선수들의 경기 시간을 고려해 하루 21시간 동안 식당을 개방해 아시아식부터 유럽식, 할랄식, 한식 등 100여 종류의 메뉴를 제공한 것도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FINA 임원과 선수단들이 본 광주는?

▲수천명에 이르는 자원봉사자들의 열정과 미소 그리고 친절에 특별한 경의를 표했다. 특히 다른 도시와 달리 거리가 깨끗하고, 광주시민들의 환대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경기에 임하다보니 선수들의 기록도 좋아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대회 기록 등 대회 운영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가.

▲이번 대회에만 신기록 30개가 쏟아졌다. 세계 신기록 9개와 대회 신기록 16개를 비롯해 한국 신기록도 5개가 나왔다. 이는 오는 2020년 도쿄 올림픽 출전권의 43%가 배정된 만큼 역대 그 어느 대회보다도 치열한 승부가 펼쳐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번 대회를 통해 세계 정상급 선수들의 불꽃 튀는 경쟁과 신예인 10대들의 돌풍도 대회 최대 이슈였다.

-성공 주역으로 빼놓을 수 없는 자원봉사자들과 서포터즈들에 대한 현장의 반응은 어땠나?

▲이들이 사실상 이번 대회 성공 개최의 주역이다. 자원봉사자들은 개·폐회식 의전부터 통역, 시상, 경기장 안내 등 31개 분야에 배치돼 현장 곳곳에 크고 작은 일들을 수행했다. 이들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3주 간 짐을 싸들고 온 자원봉사자들이 있었고, 11세 초등학생부터 90세 어르신까지 다양한 직종과 연령대에서 광주의 따뜻함을 전 세계에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특히 시민서포터즈의 활동도 눈부셨다. 각 국 선수단 입국 환영행사, 환송, 국가별 응원 등 이번 대회를 축제로 이끄는 역할을 수행했고, 이들의 활약은 외신을 통해 소개될 정도였다. 국제수영연맹은 '선수들은 팬들이 필요 없을 정도로 광주대회에서 모든 선수들에게 응원단이 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서포터즈를 집중 조명하기도 했다.

-대회 기간 중 아쉬웠던 점은?

▲대회 개막 전까지 북한 선수단 참가와 단일팀 구성을 기대했지만, 불참하면서 수영대회를 통한 평화와 화합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기회가 무산돼 아쉬움이 많았다. 또한, 우리나라 선수들의 부진과 대한수영연맹의 준비 부족도 아쉬운 대목이다. 이 가운데 대한수영연맹의 부실한 행정처리로 인한 대한민국 대표팀의 'KOREA' 없는 유니폼, 오메가의 경영 계측 장비 '렛지(ledge)' 부실 문제 등은 조직위의 운영 문제가 아닌데도 마치 조직위의 문제인 것 처럼 오해되면서 아쉬움이 컸다.

-대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해 연말까지도 정부에서 예산 추가 증액에 대해 난색을 표해 대회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 시민과 지역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도와주신 덕분에 꼭 필요로 하는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 여야 정치권 등 목소리를 내 줄 수 있는 분들은 누구나 수영대회 추가 증액에 대한 필요성을 피력해 준 것도 큰 힘이 됐다.

-다음달 5일부터 마스터즈 대회가 시작된다.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각 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치열한 우승 경쟁이었다면 다음달 5일부터 열리는 마스터즈대회는 전 세계 수영 동호인들 간의 친선과 화합을 도모하는 축제의 장이다. 동호회(클럽) 단위, 가족 동반 수영 동호인들이 국내에 입국하다. 이들은 자비로 숙박과 문화·관광, 쇼핑, 레저활동을 즐기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마스터즈대회 성격에 맞게 자원봉사자와 시민서포터즈 역할을 재정비하는 등 운영체계를 전면 재조정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이 경기를 즐기면서 광주의 맛과 멋, 흥을 즐기는 대회로 만들 것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자원봉사자·시민서포터즈 1만5000명 폭염속 희생과 나눔의 '광주정신' 실천

GWANGJU 2019 Fina WORLD CHAMPIONSHIPS

광주세계수영대회 결산

〈3〉 시민의식 빛났다

차량 2부제 자율 참여
불법주차·음주운전 등
'3무 광주' 자발적 실천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태풍 '다나스'와 폭염에도 희생과 나눔의 '광주정신'을 실천한 자원봉사자와 서포터즈 등 광주시민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대회로 평가받았다. 1만5000여명의 자원봉사자와 시민서포터즈는 경기장 안팎에서 무더위와 싸우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를 앞두고 광주와 전국 7개 권역을 순회하며 자원봉사 응모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거쳐 11세 초등생부터 90세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자 들을 선발했다. 통역 832명, 경기 진행 336명, 일반 777명, 의전 105명, 시상 78명, 수송 411명 등 모두 3126명의 자원봉사자는 선수단에 '친절한 광주'의 이미지를 심어준 일등 공신이었다.

대회기간 자원봉사자들은 각 경기장과 선수촌, 공항, 역 등에 배치돼 곳곳에서 행사 진행, 수송운전, 통역 등 크고 작은 역할을 도맡아 수행했다. 원활한 경기 진행과 선수 및 관람객들의 안전, 주차안내, 질서유지, 청소 등도 이들이 도맡아 처리했다. 자원봉사자들은 AD카드(대회등록카드)를 위조해 사용하려던 중국인 여성과, 여자 수구 선수의 특정 부위를 촬영한 일본인 몰카범을 적발하기도 했다.

시민서포터즈의 활약도 눈부셨다. 204개 팀 1만1600명의 시민서포터즈는 국가를 초월해 출전 선수를 응원하면서 남도의 정을 전 세계 수영팬들에 보여줬다. 주로 선수단 환영, 환송, 국가별 경기장 응원에 투입된 시민서포터즈는 수영 대회 붐 조성에 기여했다.

시민서포터즈는 대회 슬로건인 'DIVE INTO PEACE'(평화의 물결 속으로)가 새겨진 부채나 클래퍼를 들고 응원을 펼쳤다. 이들은 조용한 경기장을 응원과 박수소리가 넘치는 축제 행사장으로 바꿨다. 외국 선수들에게 남도의 전통문화를 느낄 수 있게 직접 자비를 들여 버스와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국제수영연맹(FINA)은 이같은 시민서포터즈의 활약상을 소개하기도 했다. 국제수영연맹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선수들이 자신의 팬들이 필요 없을 정도로 광주대회에서는 모든 선수들에게 '그들만의 응원단'이 있다"며 시민 서포터즈를 집중 조명했다.

성숙한 시민의식도 빛났다. 시민들은 대회 기간 중 차량 2부제 자율 시행이나 대중교통 이용하기에 적극 협조하고 불법주차나 음주 운전, 불법 현수막 없는 '3무 광주' 실천에도 자발적으로 앞장서며 품격있고 성숙한 시민 의식을 선보였다.

22일 오후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영 경기가 열리고 있는 광주 광산구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관중들이 응원을 하고 있다.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장인 이용섭 광주시장은 "많은 분들이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휴일도 없이 노력해준 자원봉사자와 시민서포터즈 덕분이며 그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